

# 본문말씀

## 창세기 5장~8장

### 제 5 장

#### 아담의 계보

-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
-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
-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
-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
- 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
- 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
- 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
- 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
-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
- 10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
- 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
- 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
-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
- 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
- 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
- 16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
- 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
- 18 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
- 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
- 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
-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
-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

낳았으며

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

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 
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

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

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

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

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

29 이름을 1)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 
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

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 
낳았으며

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

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

## 제 6 장

### 사람의 죄악

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

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 
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

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 
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 
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

4 당시에 땅에는 1)네페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 
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 
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

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 
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

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

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 
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

-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
-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
노아의 족보
-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 
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
-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
-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 
가득한지라
-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 
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
-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 
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 
땅과 함께 멸하리라
- 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 
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
-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2)규빗, 너비는  
오십 규빗,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
-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 
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
-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 
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
-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 
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
-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 
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
- 20 새가 그 종류대로, 가축이 그 종류대로, 땅에 기는 모든 것이  
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 
하라
-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 
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
-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

## 준행하였더라

### 제 7 장

#### 홍수

-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
-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,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
-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
-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
-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
-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
- 7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
-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
-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
-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
-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
-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
-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, 함,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
-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,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,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,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
- 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
-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

-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
-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
-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
-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
-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
-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
-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
-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
-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

## 제 8 장

### 홍수가 그치다

-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
- 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
-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
-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
- 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
- 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
- 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
- 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
- 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

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

- 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
  -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
  - 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
  -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
  -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
  -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  -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
  -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
  - 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
  -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
-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
-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1)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
  -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
  -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